

## ● 신.약.편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1. 본문 : 마가복음 2장 14절 - 17절

2:14 Καὶ παράγων εἶδεν Λευὶν τὸν τοῦ Ἀλφαίου καθήμενον ἐπὶ τὸ τελώνιον,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ἀκολούθει μοι. καὶ ἀναστὰς ἠκολούθησεν αὐτῷ. 15 Καὶ γίνεται κατακεῖσθαι αὐτὸν ἐν τῇ οἰκίᾳ αὐτοῦ, καὶ πολλοὶ τελῶναι καὶ ἁμαρτωλοὶ συνανέκειντο τῷ Ἰησοῦ καὶ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ἦσαν γὰρ πολλοὶ καὶ ἠκολούθουν αὐτῷ. 16 καὶ οἱ γραμματεῖς τῶν Φαρισαίων ἰδόντες ὅτι ἐσθίει μετὰ τῶν ἁμαρτωλῶν καὶ τελωνῶν ἔλεγο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ὅτι μετὰ τῶν τελωνῶν καὶ ἁμαρτωλῶν ἐσθίει; 17 καὶ ἀκούσας ὁ Ἰησοῦς λέγει αὐτοῖς [ὅτι] οὐ χρεῖαν ἔχουσιν οἱ ἰσχύοντες ἰατροῦ ἀλλ' οἱ κακῶς ἔχοντες· οὐκ ἦλθον καλέσαι δικαίους ἀλλὰ ἁμαρτωλούς)

### 2. 본문 번역

#### 가. 개역개정

2: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

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나. 새번역

**2:14**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15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16**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17**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 다. 공동번역개정

**2:14**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나섰다. **15**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 된 노릇이요?” 하고 물었다.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

라. NIV

2:14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Jesus told him, and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15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16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aw him eating **with the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17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마. NRSV

2:14 As he was walking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And he got up and followed him. 15 And as he sat at dinner **in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so sitting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16 When the scribes of the Pharisees saw that he was eating **with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said to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17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I have come to call not the righteous but sinners.”

#### 바. 본문에 대한 사역

2:14 그리고 그(예수)는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레위)가 일어나서 그를 따랐다. 15 그(예수)가 그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기대어 앉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그들을 비롯한 다른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그(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6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그(예수)가 세리들과 그들을 비롯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지금) 세리들과 그들을 비롯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인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 3. 동사분해

#### 가. 2장 14절

*παράγω*(*παράγω*[to pass by]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지나가는데’) / *εἶδεν*(*ὀράω*[to see]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보았다’) / *καθήμενον*(*κάθημαι*[to sit]의 현재, 중간태, 분사, 남성, 단수, 대격, ‘앉아 있는’) / *λέγει*(*λέγω*[to say]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말한다’) / *ἀκολουθεῖ*(*ἀκολουθέω*[to follow]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너는 따르라’ [여격과 함께 사용됨]) / *ἀναστάς*(*ἀνίστημι*[to cause to arise, to arise]의 단순과거, 능

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일어서는’) / *ἠκολούθησεν(ἀκολουθέω[to follow])*의 단순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따랐다’)

#### 나. 2장 15절

*γίνεται(γίνομαι[to become])*의 현재,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되었다’) / *κατακεῖσθαι(κατάκειμαι[to lie down, to recline at meals])*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 ‘(식탁에) 기대어 있는 것’ [아래 용어 설명 참조] / *συνανέκειντο(συνανάκειμαι[to recline with at table])*의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녀)들이 함께 기대어 있었다’) / *ἦσαν(εἶμις[to be])*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녀)들이 있었다’) / *ἠκολούθουν(ἀκολουθέω[to follow])*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녀)들이 따르고 있었다’)

#### 다. 2장 16절

*ιδόντες(ὄράω[to see])*의 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보는데’) / *ἐσθίει(ἐσθίω[to eat])*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먹고 있다’) / *ἔλεγον(λέγω[to say])*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녀)들이 말하고 있었다’)

#### 라. 2장 17절

*ἀκούσας(ἀκούω[to hear])*의 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보는데’) / *λέγει(λέγω[to say])*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말한다’) / *ἔχουσιν(ἔχω[to hav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녀)들이 가지고 있다’) / *ισχύοντες(ἰσχύω[to be strong])*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강한’) / *ἔχουτες(ἔχω[to have])*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가지고 있는’) / *ἦλθον(ἔρχομαι[to come])*의 단순과거, 중간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왔다’) / *καλέσαι(καλέω*

[to call]의 단순과거, 능동태, 부정사, '부르는 것')

####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 가. 용어 설명

1) τὸ τελώνιον(14절) : 세관(tax office, customs office, toll house). 이 세관은 아마도 무역로에 위치한 국경 세관이거나, 항만 운임이나 어업 관련 세금을 거두어들여던 세관이었을 것이다.

2) ἀκολουθεῖ(14절) : ἀκολουθέω[to follow]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서 제자로서 스승을 추종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레위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명한 것이며, 레위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다.

3) κατακεῖσθαι(15절) : κατάκειμαι[to lie down, to recline at meals]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서 일반적으로 향응이 제공되는 잔치(festive meal)나 정찬(dinner)에서의 식사 자세를 묘사하는 말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레코-로마 세계에서 이러한 식사 자세는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손님들은 낮은 식탁 주위에 정렬된 정찬용 소파에 기대어 음식을 즐기곤 하였다. 그러나 일반 식사의 경우, 가난한 자들은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통상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4) τελώναι : τελώνης(tax collector)의 복수 주격. 이 말은 로마의 공사업 청부업자로서 공공건물을 건축하거나 보수하는 일, 해외의 군대에 물자를 공급하는 일, 또는 몇 가지 세금, 특히 국가의 수입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십일조라든가 관세를 징수하는 일 등을 담당했던 *publicanus*와는 달리 계약을 맺고 마을이나 소규모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특히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간접세(indirect tax)가 매겨졌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관세 징수원'(toll collector)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간접세는 최고가 입찰자에게 하청

으로 주어지곤 했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세액을 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세금 징수 체계 자체가 권력 남용을 양산하곤 하였으며, 누가복음 3장 13절에도 암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도한 추가 징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J. Marcus,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27A, New York: Doubleday, 2000], 225).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금 징수원들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들을 불쾌하게 여기는 풍토가 널리 팽배해 있었는데, 예를 들어 *Mishnah Nedarim* 3:4는 살인자와 여성들을 세리들과 나란히 언급하고 있으며(J. Neusner, *The Mishnah: A New Translatio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8], 410), *Tosephta*에서는 이들을 회개하기 힘든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직함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제의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아울러 세리들이 이방인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우상이라고 여겨진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화폐를 취급한 것도 이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5) ἐν τῇ οἰκίᾳ αὐτοῦ : 문자적으로는 ‘그의 집에서’ 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αὐτοῦ(‘그의’)가 지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속격 대명사인 αὐτοῦ는 ‘레위의’ 라고 이해될 수도 있고 ‘예수의’ 라고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 전개 상 이 집이 예수의 집일 수밖에 없으며,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레위의 집’ 이라고 명시된 것은 마가복음의 원뜻을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또 다른 장면인 1장 32절 이하 단락과의 병행을 고려할 때, ‘레위의 집’ 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만일 ‘그의 집’ 이 ‘예수의 집’ 이라고 이해될 경우,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레위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된다.

## 나. 문법 사항 설명

본문의 *τελῶναι καὶ ἁμαρτωλοί*는 비교를 위해서 제시된 모든 역본에서 단순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중언법(hendiadys)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다. 헬라이어 접속사 *καί*는 중언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두 개념 중의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해 있는 경우 신약에서는 두 개념들을 대등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존적 속격을 회피하곤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καί*는 ‘and’의 의미가 아니라 두 개념을 이어서 한 개념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442, 보다 상세한 설명과 예시 구절들을 위해서는 장성민, “원어로 성경읽기-신약편”, 『성서마당』 86호 [2008년 여름, 147을 보라] 그러므로 본문의 ‘세리들과 죄인들’은 두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헬라이어 접속사 *καί*는 뜻을 강화시키거나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일반화와 특정화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전 헬라 문헌들에서 “*Ζεὺς καὶ θεοί*”(제우스와 그를 비롯한 여타 신들)이나 “*θεοὶ καὶ Ζεὺς*”(신들, 그 중에서도 제우스)라는 표현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의 *καί*는 ‘즉, 예를 들어, 등등’(namely, for example, and so)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연결되는 두 범주 가운데 하나를 특정하여 강조하거나 두 범주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H. W. Smyth, *Greek Grammar*[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 2869). 이에 따라 본문의 *τελῶναι καὶ ἁμαρτωλοί*는 “세리들과 그들을 비롯한 다른 죄인들”(즉 ‘세리’가 ‘죄인’이라는 보다 큰 범주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은 1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인’이라는 범주를 고려할 때 더욱 타당한 것이 된다. *καί*를 중언법으로 이해하든 특정화



를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든, 본문의 *τελώναι καὶ ἀμαρτωλοί*라는 표현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5. 설교에 적용하기

구약의 정결법을 철저히 준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소위 ‘분리를 통한 거룩함’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제의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므로써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국경 세관에서 이방인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우상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화폐를 취급하고 로마 황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세금 징수의 선봉에서 있는 세리들은 민족의 역적이자 이스라엘 신앙의 배교자이며 죄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 특히 ‘분리를 통한 거룩함’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은 정결법적으로 용인되지 못할 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적인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다. 주님은 이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불러 칭찬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죄인들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드러내시거나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다. 의사가 병자를 고치듯, 죄인들을 불러 환대하시고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애당초 죄인들을 불러 환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정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거나,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레위와 같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환대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의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레위와 같이 정결하지도 못하고, 충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서 바리새인의 비난에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중(original intention)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